

송지호 “탐났던 ‘침입자’, 밝은 ‘런닝맨’ 이미지와 반대”

배우 송지호가 ‘침입자’로 스릴러 장르에 도전한 이유를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는 영화 ‘침입자’ (감독 손원평)의 주연 송지호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침입자’는 실종됐던 동생 유진이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

가족에게 돌아온 서진(김무열 분)의 동생으로 수수하고 소심해 보였던 첫인상과 달리 금세 가족들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만 어딘지 모르게 점점 분위기가 달라져 간다.

이날 송지호는 ‘침입자’가 두 차례 개봉이 연기된 후 마침내 개봉이 결정된 데

다고 하더라.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어 했다”며 “이 영화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제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침입자’에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다”며 “그동안 해왔던 작품의 캐릭터가 장르도 그렇고 어두운 걸 많이 안 했었다. 같잖이 ‘침입자’ 시나리오를 읽고 더 커졌고 욕심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SBS ‘런닝맨’ 멤버로도 활약 중이다.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예능 출연으로 긍정적인 것은 여러가지가 많다. ‘런닝맨’을 하기 전에는 어둡다는 이미지가 많았다. ‘런닝맨’ 이전에 작품 활동을 할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이미지가 밝은 게 있는데 어두운 게 부각이 됐던 것 같다. 밝은 이미지를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침입자’는 오는 6월4일 개봉한다.

미스터리 스릴러 25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유진역 코로나 19로 안전문제 대두...두차례나 개봉 연기

씩 변해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지난 2017년 말간한 첫 장편 소설 ‘아몬드’로 25만부를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손원평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송지호는 데뷔작인 ‘여고괴담3-여우계단’ (2003) 이후 17년만에 스릴러 영화에 도전했다. 그는 극 중 가족이 되려는 여자 유진 역을 맡았다. 유진은 25년 만에

대해 “기다라기도 많이 기다렸다.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제작사 쪽에서 결정을 내린 걸 따라야 했다”며 “저는 시나리오를 먼저 읽게 됐다. 너무 탐이 났다. 영화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너무 탐이 나서 감독님을 뵈러 갔다”고 털어놨다.

또 송지호는 “처음에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봤는데 제작사 대표님께서 소속사 대표님에게 시나리오를 전달했



2030세대 “트로트 인식, 긍정적으로 변해”

연인에게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재개발’ 듣고 싶어

2030 젊은 세대들의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10년 전에 비해 최근 급격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오는 지난달 15~27일 미혼남녀 총 456명을 대상으로 ‘2030 트로트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68.0%)이 10년 전과 비교해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비해 △별도로 관심 없다

(10.7%)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9.2%)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8.6%)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3.5%) 등의 응답이 나왔다.

트로트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트로트 관련 “TV 예능 프로그램”(33.6%),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데뷔”(20.2%) 등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TV조선의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이 연이어서 성공하며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송가인, 홍자, 임영웅, 영탁 등 트로트 스타들이 연이어 탄생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신난다(33.3%) △재미있다(27.0%) △울드하다(15.8%) △특별하다(11.4%) 등 순이었다.

한편 연인에게 듣고 싶은 트로트 노래로는 남성은 여자친구가 ‘사랑의 배터리’(32.4%)를 불러주면 사랑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은 ‘사랑의 재개발’(24.7%)을 들길 원했다.

청하, 9일 새 싱글 ‘비 유어셀프’ 발매

가수 청하가 ‘뉴웨이브’(New.wav) 프로젝트로 신곡을 발표한다.

청하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2일 “청하가 자사의 뮤직 프로젝트 ‘뉴웨이브’를 통해 오는 9일 새 싱글 ‘비 유어셀프’(Be Yourself)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비 유어셀프’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단어)를 대변하는 ‘멀티 페르소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틀을 깨어 시원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모두의 모습은 단편적인 하나의 색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 곡은 최근 청하가 모델로 출연한 브랜드 스포츠웨어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음원으로, 뜨거운 여름 마음속 더위마저 잊게 하는 한 잔의 음료처럼 시원한 여름의 찬가를 완성했다.

한편 MNH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프로젝트 ‘뉴 웨이브’는 대중가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의미의 사전적 의



미 ‘뉴 웨이브’와 음원의 확장자 이름 ‘wav’를 차용해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격변하는 ‘하트시그널3’ 4주 연속 화제성 1위

‘하트시그널3’가 4주 연속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일 TV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발표에 따르면 채널A ‘하트시그널3’는 5월 4주차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드라마와 비드라마 부문을 합친 종합 화제성 순위에서도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의 경우,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이효리가 1위, 박지현 김강열 천인우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하트시그널3’은 최근 방송인 5월27일 방영분에서 입주자 8인의 두 번째 공식 데이트 장면이 섬세하게 그려지며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한편 오는 3일 오후 9시50분 방송되는 ‘하트시그널3’에서는 자꾸만 타이밍이 어긋났던 천인우와 박지현의 데이트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박보검, 해군 문화홍보단 지원

25일 합격 발표→합격시 8월31일 입대

배우 박보검 해군 군악대에 지원했다. 오는 25일 합격 여부가 발표되며, 합격시 8월31일 입대를 하게 된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뉴스1에 “박보검이 해군 문화홍보단에 지원했고, 지난 1일에 면접을 봤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용히 지원을 하다보니 소속사에서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었다”며 “아직은 합격여부가 미정으로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공식 입장을 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명지대학교에서 뮤지컬을 전공한 박보검은 해군 군악·의장대 문화홍보병 건반 파트에 지원해 1일 충남 계룡시 해군 본부에서 실기 및 면접시험을 치렀다.

합격 여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합격 시, 박보검은 오는 8월31일 오후 2시 해군병 669기 교육 과정에 입소해 6주 동안 기초 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해군 기초 훈련은 입영후 포함 5주이나, 8월31일 입영 장병부터는 훈련 기간이 6주로 늘어난다.



한편 박보검은 올해 tvN 드라마 ‘청춘기록’ 방송을 앞두고 있다. ‘청춘기록’은 한남동을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이 배우가 되고 스타가 돼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물려주는 수저의 영향을 통해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로, 박보검은 박소담 변우석과 호흡을 맞춘다.

김수현x서예지 로맨틱 코미디서 호흡

tvN 새 주말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포스터 공개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김수현과 서예지가 조금은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인다.

2일 tvN 새 주말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극본 조용/연출 박신우/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토리티브, 골드메달리스트)측은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버거운 삶의 무게로 사랑을 거부하는 정신병동 보호사 문강태(김수현 분)와 태생적 결함으로 사랑을 모르는 동화 작가 고문영(서예지 분)이 서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한편의 판타지 동화 같은 사랑에 관한 조금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포스터 속에는 은은한 햇살 같은 조명 아래 아늑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는 김수현(문강태 역)과 서예지(고문영 역)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각자의 인식처를 만난 듯 따스하고 애뜻한 감정이 서려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개인 포스터를 하나의 그림 조각처럼 이어 붙이면 밀착하는 두 사람의 포옹이 완성돼 과연 이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서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과



함께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 김수현의 포스터에는 “죽을 만큼 힘들면 도망이 제일 편하거든”이라는 문구로 문강태 캐릭터의 힘든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서예지의 포스터에는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이일 뿐이야”라고 표현돼 있어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편 묘한 응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진은 “이번 캐릭터 포스터는 공허한 세상에서 따뜻한 위로이고 싶은 두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서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할 이들의 서사를 기대해 달라”며 포스터에 담긴 의미를 전했다.